ISSN 2509-2817 KiDRS Korea Institute of Design Research Society 2023. Vol.8 No.1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프코어(Gorpcore)에 대한 연구

A study on Gorpcore in contemporary fashion

주 저 자 : 김생자 (Kim, Sang Ja)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박사
kims489@konkuk.ac.kr

https://doi.org/10.46248/kidrs.2023.1.583

접수일 2023. 02. 28. / 심사완료일 2023. 03. 19. / 게재확정일 2023. 03. 22. / 게제일 2023. 03. 30.

Abstract

This research shows that lifestyles have changed drastically since Corona 19, and the boundaries between everyday clothes and outdoor activities have collaps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MZ generation, who are most sensitive to trends. In addition to the rapid rise of interest in the Gorpcore style, it will consider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Gorpcore style, which has become more influential, and aim to be an accurate standard for future the Gorpcore research and to be used as efficient information. Also through this, it would like to help understand the Gorpcore in fashion design development and use it for practical design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it conducted literature research through reference materials, fashion magazines, websites, periodicals, papers, design-related books, articles, and relevant design Internet sites that mention the Gorpcore. The Gorpcore is a fashion trend concept that reflects social backgrounds and lifestyles, and is not only comfortable to wear but can be used as everyday wear as well as a design with functional materials that combines the stylish outdoor's of clothing with matching outfits. The formativeness of the Gorpcore style that expressed in modern fashion is a dual orientation of the multi-functional fusion of the convergence form of the functional elements of clothing design, and the form of mixing functional elements that aim for extreme luxury in ordinary appearance, and an emphasis on the use of recycled materials based on ethical consumption, it was derived as an eco-friendly sustainability that can be used continuously over a long period of time.

Keyword

Gorpcore(고프코어), Normcore(놈코어), MZ generation(MZ세대)

요약

본 연구는 코로나 19 이후 라이프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화 하면서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MZ세대의 주도하에 일상복과 아웃도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세계 리딩 아웃도어 브랜드부터 스포츠브랜드, 국내외 글로벌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고프코어 스타일에 대한 관심의 급부상과 더불어 영향력이 커진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고, 앞으로의 고프코어 연구에 정확한 기준이 되고 효율적인 정보로 활용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개발에 있어서 고프코어에 관한 이해를 돕고 실제적인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프코어가 언급된 문헌자료나 패션전문지, 웹, 정기 간행물, 논문, 디자인 관련 전문 서적, 기사나 해당 디자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문헌 연구를 진행하였다. 고프코어는 패션 트렌드의 개념으로 사회적 배경과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스타일로 일반적인 등산복에서 벗어나 일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착용감이 편할 뿐 아니라 기능성 소재에 세련된 디자인이 접목된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의류를 매치해서 입는 패션을 말한다.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은 의복디자인의 기능적 요소들의 컨버전스 형태의 다기능 융합성, 평범한 외형에 극도의 럭셔리함을 지향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믹스한 형태의 이중적 지향성과 윤리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 재활용 소재 사용에 중점을 두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지속성으로 나타났다.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이론적 배경

2-1. 고프코어의 개념

2-2. 고프코어 스타일의 특성

3. 브랜드에 나타난 고프코어스타일 분석

3-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3-2.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

4.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4-1. 다기능 융합성

4-2. 이중적 지향성

4-3. 친환경 지속성

5. 결론

참고문헌

1.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의의

팬데믹 이후 라이프스타일이 급격하게 변화 하면서 패션계는 패스트 패션에서 이커머스 패션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MZ세대의 주도하에 일상복과 아웃도어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그렇게 등장한 트렌드가 고프코어 이다. 경제가 불황으로 꺾이면서 스마트함과 지속가능성, 뉴노멀 이라는 키워드를 버무린 실용적인 패션은 고프코어 트렌드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세계 리딩 아웃도어 브랜드부터 스포츠 브랜드, 국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고프코어 스타일의 광범위한 확장성과 영향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고 모호하며, 짧은 역사로 인해 고프코어 스타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패션분야에서 고프코어 스타일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연구가 시급한 현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나타나게 된 고프코어 스타일을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와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 분석을 통해 고프코어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별 특성과 표현 특징을 통해 미적특성을 이해하고 조형성을 도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에 대한 선행 연구가 없고 기준이 모호한 이 시점에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을 분석하고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연구에 효율적인 정보로 활용되어 정확한 기준 뿐 아니라 패션디자인 개발에 활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최근 패션 트렌드 개념의 ‘고프코어(Gorpcore)’스타일을 패션 컬렉션과 고프코어 대표 패션 브랜드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별 특성과 표현특징을 바탕으로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2절 이론적 배경에서는 고프코어의 개념 및 용어정의를 통하여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는 고프코어가 언급된 문헌자료나 패션전문지, 웹, 정기 간행물, 논문, 디자인 관련 전문 서적, 기사나 해당 디자인 인터넷 사이트 분석을 통하여 고프코어의 개념과 고프코어 스타일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1,2절을 통해 도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3절에서는 고프코어 스타일을 분석하기 위해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와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 분석을 통해 고프코어 스타일의 디자인 요소별 특성과 표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4절에서는 3절 고프코어 대표 브랜드들의 디자인 분석을 통해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넷째, 5절 결론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고프코어의 개념

고프(Gorp)는 ‘Granola, Oats, Raisins and Peanuts'의 약어로 그레놀라(G), 오트(O), 레이즌(R), 피넛(P)등으로 구성된 트레일 믹스의 앞 글자만 딴 단어로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야외 활동, 캠핑을 갈 때 즐겨 먹는 견과류 간식을 통칭하는 말이고,[1] 'Gorpcore'는 2017년 5월 패션매거진 더컷(The Cut)

의 제이슨 첸(Jason Chen) 기고한 기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2] '고프코어(Gorpcore)'는 2017년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으며, 야외 활동시 에너지 보충을 위해 먹는 견과류와 말린 과일을 뜻하는 '고프(Gorp)'와 평범하면서 자연스러운 멋을 추구하는 '놈코어(Normcore)'의 합성어이며, 등산이나 캠핑을 갈 때 챙겨가는 견과류 믹스를 아웃도어 룩에 빗대어 표현한 신조어로 과거 형형색색의 등산복에서 벗어나 일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착용감이 편할 뿐 아니라 기능성 소재에 세련된 디자인이 접목된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의류를 매칭해 입는 패션을 말한다.

기존의 놈코어는 평범함을 추구하고 일상복을 매치해 입는 스타일이라면 고프코어는 일상복에 등산복, 모자, 장갑 등을 적절하게 매치해 입는 것이다. 회사에서나 캠핑장에서 입어도 어색하지 않는 캐주얼한 아웃도어 룩을 지향하며, 특별한 형식 없이 본인이 활동하기 편하게 매칭해서 입는다. 고프코어는 일상복처럼 점잖고 세련되어진 등산복과 등산복 못지 않은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일상복의 퓨전(Fusion)화를 시도한 스타일이다.

고프코어는 기본적으로 등산복, 우비, 바람막이 점퍼, 재킷 등 야외활동 용품을 '엉뚱한 방식'으로 활용한 데서 출발했으며, 이들 제품이 보유한 투박함과 편안함에 착안, 실용성 이외의 다른 요소들 즉 조화로운 색감, 실루엣, 세련미 등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의도된 부조화' 연출 등이 고프코어 스타일의 중요 포인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프코어는 '마운트 시크(Mountain Chic)' 시크한 등산복 룩과 '캠핑글램(Camping Glam)' 매력적인 캠핑의상으로도 지칭하기도 한다.

2-2. 고프코어 스타일의 특성

고프코어 스타일의 특성은 아웃도어의 기능적이고 실용성이 강한 디자인이 일상복과 접목된 패션아이템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웃도어 룩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아웃도어를 데일리 웨어에서 포인트 요소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웃도어 활동을 할 때 입는 기능성 의류를 일상복으로 입으면서 보다 개성 있고 트렌디한 아웃도어 패션이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고프코어는 야외활동 시 체력 보충을 위해 먹는 견과류인 고프와 평범한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멋을 추구하는 놈코어의 합성어로 일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패션 스타일을 의미한다. 야외에서 편안하면서도 힙한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고프코어 스타일은 카키색 계열의 넉넉한 재킷과 조거팬츠, 워커 등을 매치해 자연스러우면서도 꾸민 듯 꾸미지 않은 스타일의 정석을 보여준다.[3] 컬러는 카키나 베이지, 그레이 컬러등 어스컬러(Earth color)를 주로 활용해 편안하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추구한다. 등산복, 우비, 바람막이 점퍼, 재킷 등 야외활동용품 등의 제품이 보유한 투박함과 편안함에서 착안, 실용성 이외의 다른 요소들 즉 조화로운 색감, 실루엣, 세련미 등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의도된 부조화' 연출 등이 고프코어 스타일의 핵심이다.[4]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파타고니아(patagonia)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나온 퍼프재킷(Puff Jacket: 보온성을 강조한 풍성한 재킷), 패딩조끼, 등산 양말과 등산화, 샌들, 힙색을 뜻하는 패니백(Fanny Bag)등은 고프코어 스타일의 대표 아이템으로 언급된다.[5]

영국패션 편집 숍 ASOS의 수잔 터커(Susannah Tucker) 시니어 에디터는 "영하의 날씨 속에서 눈발을 뚫고 이웃집을 찾아가거나 캠프를 차리고 불을 피울 때 입는 기능성 의류를 일상에 끌어온 게 고프코어"라며 그 결과 전혀 스타일리시하지 않은 의상만큼 스타일리시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프코어 스타일은 본질적으로 세련된 스커트와 삼선 슬리퍼를 매칭하거나, 풍성한 패딩 아래 반바지를 입던 조화에는 일절 신경 쓰지 않는 스타일이다. 발렌시아가(Balenciaga)에서는 2018년 봄, 여름 시즌 컬렉션에서 정장과 아웃도어 등산복, 아노락(Anorak: 방한에 중점을 둔 후드달린 바람막이 재킷)등 '부조화=깨는" 의상을 선보였다. 특히 과장된 크기의 아노락은 모델의 실루엣마저 완전 가려 '노숙용 의상'을 연상 시키는 분위를 연출하였다.

---

1) 월간 산 [정보 | 2018 S/S 아웃도어 트렌드] 등산복과 일상복의 퓨전시대
http://san.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618

2) vmagazine
https://vmagazine.com/article/our-gorpcore-picks-to-stay-hot-in-cold-weather/

3) 아웃도어뉴스
http://www.outdoo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28

4) 이민선, 패션에 표현된 일상성: 놈코어, 고프코어, 미노코어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2018. 11, Vol.61, P19-30

5) 매일경제, "못생기니 관심받네"…'고프코어(gorpcore)' 패션이 대세,
https://www.mk.co.kr/news/business/8257073

프라다(Prada)도 2018년 봄, 여름 시즌 컬렉션에서 캠핑룩과 함께 본격적으로 고프코어 스타일을 반영해왔다. 이외에 해외 유명디자이너 마르케스 알메이다(Marques' Almeida)가 선보인 과장된 실루엣의 퍼프 재킷, 지방시(Givenchy)의 범백(Bum bag)등도 고프코어 스타일의 잘 보여준 대표 컬렉션으로 꼽힌다. 프라다(Prada)의 캠핑룩, 지방시(Givenchy)의 아웃도어 룩이 런웨이에 등장하기 시작한 이후 발렌시아가(Balenciaga), 오프 화이트(Off-White) 등 하이엔드 패션이 아웃도어 아이템을 재해석한 고프코어 스타일을 주요 트렌드로 선보이고 있다. 패딩 점퍼부터 아노락, 낚시조끼, 힙색까지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해 보여 지고 있으며, 아노락은 등산과 스키에 쓰이는 방풍과 방설을 위한 후드가 달린 풀오버 형태의 재킷으로 2018년 이후 현재까지 명품브랜드와 국내외 스트리트 브랜드들이 고프코어 트렌드의 중요 아이템으로 선보이고 있다. 더불어 낚시조끼와 힙색 등도 일상복 차림에 포인트로 활용하며 고프코어 패션의 주요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명품 브랜들이 아웃도어를 재해석하면서 세련된 룩을 선보이며 새로운 코프코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고프코어 스타일이 트렌드로 주목 받으면서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도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블랙야크'는 런던 크리에이티브팀과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일환으로 고프코어 스타일을 선보였다. 재활용 원단을 활용한 아웃도어 아이템을 영국의 클래식한 감성에 맞춰 재해석하여 선보였다.[6] [그림 1]

[그림 1] 블랙야크(Black Yak), 런던 크리에이티브팀과 블랙야크 자투리 원단 활용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그림 2] 루이비통과 슈프림(Supreme)간의 협업

6) 어패럴 뉴스
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71701

이처럼 해외 명품과 국내외 글로벌 브랜드가 고프코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이유는 미래 주요 세대로 부각되고 있는 'MZ세대=밀레니얼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편견이 없는 포용성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MZ세대는 과거의 명품이 보여주었던 권위적이고 고풍스러운, 다가가기 힘든 분위기를 좋아 하지 않기 때문에 명품 업계는 '길거리 패션'을 보여주는 스트리트 브랜드 등 타 업계에 과감하게 손을 뻗는 등 변신을 시도해왔다. 루이 비통과 스트리트 브랜드 슈프림 간의 협업이 대표적이다. [그림 2] '패션역사에 남을 만남'이라는 대호평과 함께 전 세계 매장 앞 밤샘 줄, 품절 사태를 불렀다. 이를 통해 루이 비통은 그간 좀처럼 다다가지 못했던 젊은 세대에 어필, 길거리 무드까지 포괄하는 영(young)브랜드의 이미지를 얻었다. 고프코어라는 명품가의 '무한도전' 역시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인 셈이다.[7] 고프코어 트렌드는 패션 자체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고, 고프코어는 축척되어 온 재단기술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기도 하다.

3. 브랜드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 분석

브랜드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은 크게 고프코어 영감을 통해 표현한 스타일의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컬렉션과 일상에 적용 가능하고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고프코어 대표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 나누어 보여진다. 이 두 형태의 고프코어 대표 브랜드의 스타일에 따른 디자인 요소별 특성분석을 통해 고프코어 스타일 표현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브랜드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3-1.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최근 하이엔드 패션계의 시선은 정확히 실용성에 머물러 있다. 나날이 입지를 다지고 있는 스포티즘부터 평범함을 추구하며 큰 파장을 일으킨 놈코어 패션까지, 최근까지 떠오른 트렌드는 모두 아름다움보다는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많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가 패션 판타지를 자극하기보다 다수가 편하게 즐길

7)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business/8257073

수 있는 실용성과 편안함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가 고프코어 스타일이다. 고프코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선정을 위해 디자이너 전문 웹사이트, 온/오프라인 패션전문 채널, 브랜드 홈페이지와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서 2015년~2022년 사이 고프코어 트렌드, 고프코어 스타일, 고프코어 브랜드 등의 검색어에 언급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브랜드 분석은 고프코어 스타일의 적용 사례를 통해 각 브랜드별 디자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고프코어 스타일 대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로는 발렌시아가(Balenciaga), 지방시(Givenchy), 프라다(Prada), 베트멍(VETE- MENTS), 마리 카트란주(Mary Katrantzou), 구찌(Gucci), 보테가베네타(BOTTEGA VENETA), 캘빈클라인(Calvin Klein) 등으로 선정하였다.

[그림 3] Balenciaga, 2017 F/W RTW

[그림 4][그림 5] Mary Katrantzou, 2018 S/S RTW

과거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서 보여주던 권위적이고 고풍스러운 스타일 대신 남들과 구별되고 차별화된 자신만의 개성을 실용성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고프코어 스타일이 주목받는 데는 발렌시아가(Balenciaga)가 선두자 역할을 하였다. [그림 3]은 2017 F/W 발렌시아가 맨즈 컬렉션(Balenciaga Men's Collection)에 등장한 셔츠와 스웨트 셔츠를 겹쳐 입고 후드를 뒤집어쓴 룩은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의 런웨이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캐주얼한 스타일을 선보였고, 레이어링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며 럭셔리와 거리가 멀어 보였으며, 실제로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평범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여성 컬렉션에서는 아웃도어 룩을 극도로 페미닌한 스타일로 재해석하여 연출하는 등 디자이너들이 고프코어라는 새로운 흐름에 편승하고자 고심한 흔적이 보여졌다. [그림 4]와 [그림 5]은 마리 카트란주(Mary Katrantzou)의 색칠 공부가 연상되는 플라워 패턴을 디지털 프린팅한 소재와 비비드한 배색의 수납력이 돋보인 멀티포켓을 등산용 바람막이 점퍼 스타일의 원피스로 아웃도어룩을 페미닌한 스타일로 믹스하여 재해석하여 표현하였으며, [그림 5]은 풍선같이 부푼 실루엣의 스포티한 나일론 드레스와 차분한 어스 컬러의 윈드브레이커 점퍼를 매치하여 기능성 캐주얼웨어를 표현하였다.

[그림 6] Calvin Klein, 2018 S/S RTW

[그림 7] Gucci, 2018 F/W RTW

[그림 8] CELINE, 2021/2022 RTW

[그림 6]의 캘빈 클라인(Calvin Klein)는 아웃도어 스타일의 커다란 지퍼와 스트링으로 장식한 비비드한 컬러의 나일론 드레스는 페미닌한 아웃도어 캐주얼 드레스를 새롭게 표현하였다, [그림 7] 구찌(Gucci)는 MLB와 협업한 베이스볼 캡과 트레킹화를 키 아이템으로 빈티지감성의 아웃도어 캐주얼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그림 8]은 2021/2022 F/W CELINE 컬렉션에 아웃도어의 대표적 고전적인 야외 필수아이템인 플리스 재킷을 볼캡과 빈티지 감성의 데님과 믹스매치하여 실용성과 럭셔리함을 갖춘 편안한 캐주얼한 스타일로 표현하였다.

[그림 9] VETEMENTS, 2016/2017 F/W RTW

[그림 10] [그림 11] Balenciaga, 2017 F/W RTW

[그림 9]는 베트멍(VETEMENTS)의 아웃도어 사파리 점퍼 스타일을 과장된 실루엣과 볼륨감을 오버사이즈 형태로 시크하면서 편안함을 추구하는 트렌디한 고프코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그림 10]은 2017년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F/W 컬렉션에서 선보인 비대칭 여밈의 파카이다. 그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신박한' 디자인으로 패션계 큰 충격을 준 파카를 보다 볼드해진 스트라이프 패턴과 오버사이즈의 코트로 변형시켰다. [그림 11]는 발렌시아가(Balenciaga)의 F/W 컬렉션의 반쯤 뒤로 젖혀진 V 실루엣 오프숄더 아우터는 옷을 입는 새로운 하이 패션 애티튜드를 새롭게 창조했다.

[그림 12] Givenchy, 2021/22 S/S RTW

[그림 13] Givenchy, 2021/22 F/W RTW

[그림 14] PRADA, 2018 S/S RTW

[그림 12]은 지방시(Givenchy)의 전통적인 테일러링 감각을 보여주는 2021/2022 S/S 남성 컬렉션의 코트와 아웃도어 무드의 이너웨어로 아웃도어 상징적인 아이템인 짚업 티셔츠와 기능성 수납력 포켓이 포인트인 아웃도어 베스트 등을 대조적인 요소의 아이템들을 과감하게 조합했다. [그림 13]은 지방시(Givenchy)의 2021/2022 F/W 남성 컬렉션의 클래식 슬림팬츠와 럭셔리 아웃도어 패딩에 아웃도어 액세서리인 페이스워머와 페니백을 전체적인 컬러를 동일하게 레이어링하여 하이엔드 고프코어 스타일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그림 14]는 프라다(Prada)의 2018 S/S 컬렉션의 형형색색 야외활동 아웃도어 윈드 사파리 자켓과 아웃도어용 소품 등을 액세서리로 '부조리하게' 매칭하여 하이엔드 코프코어 스타일의 패션을 보여 주었다.

앞서 언급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은 단지 아웃도어와 캐주얼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었을 뿐이며, 력서리 명품브랜드의 감성만을 절제하고, 실제적으로 고프코어 스타일이 추구하는 실용성과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미적인 요소 보다는 아웃도어의 실용적인 일부분만 차용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 졌기 때문이다. 또한 패션의 판타지를 배제하고 편안함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연출하였으며, 기존의 양식을 깨는 상반된 이탈적 스타일 코디도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 드러났다. 감성적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을 융합하여 표현하며, 새로운 유스(Youth) 감성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고프코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표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는 단지 외형적인 요소에서만 영감을 받은 고프코어 스타일을 연출하였고, 당장 캠핑을 떠난다 해도 상관없을 만큼의 실용성을 갖춘 기능성 소재나 컬러 등을 사용하여 현실적인 스트리트 패션에서 보여 지는 코프코어 스타일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2.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

일상의 스트리트 패션에서 고기능성 아웃도어 스타일을 실용적이고 안락하게 사용 가능한 고프코어 대표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일상복과 아웃도어 경계가 없어지는 스타일을 나타내고, MZ세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아웃도어와 캐주얼영역에서 믹스매치와 레이어드로 완성도 높은 트렌디한 스타일로 보이고 있다. 고프코어 스타일은 편안한 패션과 실용성의 하이브리드 패션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트렌드에 반영되어 보일 것으로 예측되어지므로, 고프코어의 오리지널리티를 간직하고 있는 대표브랜드를 분석함으로써 일상에서의 실용적이고 완성도 높은 스타일의 고프코어 패션으로 많이 활용되어지는 기준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프코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표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선정을 위해 디자이너 전문 웹사이트, 온/오프라인 패션전문 채널, 브랜드 홈페이지와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서 2015년~2022년 사이 고프코어 트렌드, 고프코어 스타일, 고프코어 브랜드 등의 검색어에 언급된 브랜드를 선정하였다. 브랜드 분석은 고프코어 스타일의 적용사례를 통해 각 브랜드별 디자인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선정된 고프코어 스타일 대표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로는 아크테릭스(ARCTERYX), 베일런스(Veilance), 파타고니아(patagonia), 노스페이스(The North Face), 살로몬(Salomon), 앤드 원더(And Wander), 다이와 피어(Daiwa Pier39), 민즈 와일 (Meanswhile) 등으로 선정하였다. 이 대표 브랜들

은 기존의 아웃도어 패션과 비교했을 때 미니멀한 디자인과 차분한 컬러의 세련된 뉴트럴 컬러를 사용하고, 하이테크 기능성 소재와 패턴을 사용하여 보여지는 외형 뿐아니라 착용자의 극강의 편안함을 느끼는 감성도 포함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고프코어가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지만, 고프코어 스타일의 대표 브랜드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매니아층에서만 인지도가 있어서 각각의 고프코어 대표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설명이 필요하여, 고프코어 대표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의 대표적 스타일의 아이템을 분석하기에 앞서 브랜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아이템을 분석하고자 한다.

3-2.1 아크테릭스 (ARCTERYX)

아크테릭스(ARCTERYX)는 1989년, '락 솔리드 매뉴팩처링'이라는 이름으로 데이비드 레인에 의해 캐나다에서 설립된 브랜드다. 캐나다에 거주하며 등산과 트레킹을 취미로 하던 데이비드 레인은 좋은 품질의 장비들이 부족해 아웃도어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후 아크테릭스는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아웃도어 브랜드지만 타 브랜드들과 차별화된 포지션에 위치하게 되었다. 애슬레저부터 고프코어에 이르는 트렌드까지 더해져 래퍼,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할 것 없이 다양한 계층과 카테고리에서 소비되는 대표적인 고프코어 브랜드로 성장했다. 예전 세대들이 노스페이스에 열광했었다면 요즘 MZ 세대들은 아크테릭스에 열광하는 브랜드이다.

[그림 15] 아크테릭스 고기능 패딩점퍼 & 고어텍스 쉘재킷

[그림 15]의 우측사진은 고어 텍스 쉘 재킷으로 하이테크 소재로 가볍고 편안하여 착용자가 옷을 입지 않는것처럼 느끼는 아크테릭스 대표 아이템이다. 좌측사진은 고기능성 충전재의 경량 패팅과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기능성 티셔츠는 오래도록 입을 수 있는 소재로 업사이클링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인 코프코어 스타일의 아이템이다.

3-2.2 베일런스 (Veilance)

베일런스(Veilance)는 아크테릭스의 기술력이 집중된 테크니컬 한 의류들과 클래식한 남성복 그 틈새에 포지셔닝 된 브랜드로, 2010년 소개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2019년 봄 여름 컬렉션부터는 '아크테릭스 베일런스'가 아닌 '베일런스'로 단독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베일런스는 테크 웨어의 아버지이자 아크로님(ACRONYM®)의 수장인 애롤슨 휴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준야 와타나베에서 디자인을 했었던 타카 가스가가 디렉팅을 맡고 있는 아웃도어와 클래식한 남성복의 믹스매치로 고프코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브랜드이다.

[그림 16] 베일런스 윈드재킷 & 후드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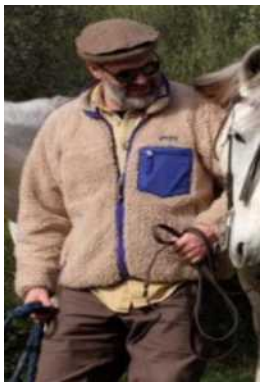
[그림 16]은 기술력이 집중된 테크니컬 한 소재의 후드 집업과 클래식한 남성복 재킷을 매치하여 고프코어스타일의 새로운 룩을 제시하였다.

3-2.3 파타고니아(patagonia)

파타고니아(patagonia)라는 브랜드는 친환경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이다. 친환경 글로벌 브랜드라 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브랜드이며, 1964년 파타고니아 설립자 이본 쉬나드는 암벽등반 시 암벽을 해치지 않는 금속 못을 제작하여 1973년 친환경 아웃도어 의류 브랜드 파타고니아를 설립하였다.

최고의 품질을 고집하면서 높은 내구성과 유행을 타

지 않는 디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 개발에 매진하고 매년 매출의 1%를 사회 공헌활동에 사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파타고니아는 제품의 품질을 최고로 만들며 생산 과정에서 자연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100% 유기농 순면만 사용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이용하려 하고 파타고니아를 위해 억지로 새로운 환경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파타고니아는 많은 제품을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소재를 사용하고, 농약 같은 화학비료를 안 쓰고 목화로 만든 순면을 사용하고 매년 매출의 1%를 사회 공헌활동에 사용을 하는 등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림 17] 파타고니아 클래식-X플리스재킷

[그림 17]은 파타고니아 클래식-X플리스재킷으로 아웃도어 고전 필수품이며,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플리스 소재를 사용하여 따뜻하고 부드러워 여러 아이템들과 레이어링하여 고프코어 스타일 연출하기에 좋은 대표 아이템이다.

3-2.4 노스페이스 (The North Face)

아웃도어 브랜드 중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 노스페이스도 고프코어 트렌드에 빼놓을 수 없다. 노스페이스는 미국의 등산용품 및 아웃도어 브랜드이다. 오늘날 수많은 브랜드들과 컬래버레이션을 하며 그야말로 클래식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다. 지난 2000년대에서 2010년대까지 노스페이스의 독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주로 컬래버레이션 제품들이 고프코어 트렌드에 스타일링 되고 있다.

[그림 18] 노스페이스, 1996 컬러블록 레트로 눕시 재킷

[그림 18]은 노스페이스의 1996 컬러블록 레트로 눕시 재킷은 발수 처리된 리사이클링 립스톱 소재와 보온성 높은 RDS 구스다운으로 외부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활용도 높은 아이템으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실용성의 가치를 더 높여주는 고프코어 스타일 연출에 좋은 대표 아이템이다.

3-2.5 살로몬 (Salomon)

살로몬(salomon)은 1947년 프랑스 알프스에서 푸랑수와 살로몬에 의해 스키 엣지를 만들며 시작된 브랜드로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고 있는 XT-6는 혹독한 환경에서 장시간 러닝을 할 수 있는 러닝슈즈로 2013년에 출시됐던 제품이다. 살로몬은 패션에서 애슬레저룩과 고프코어 트렌드에 힘입어 큰 성장을 한 브랜드이다. 현재 살로몬은 트레닝 러닝, 클라이밍, 레이싱, 익스트림 레이싱, 스키 등의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40여 개 국에서 만나볼 수 있다. 고프코어 스타일로 연출하는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 대표 액세서리브랜드이다.

[그림 19] 살로몬 XT-6 남녀 공용 스포츠 스타일 신발

[그림 19]은 살로몬 XT-6 남녀 공용 스포츠 스타일 신발로 편안함과 내구성이 좋아 도시주변 트레킹과 가벼운 하이킹에 적합한 고프코어 스타일의 대표 신발이다.

3-2.6 앤드 원더 (And Wander)

앤드 원더(and wander)는 기존의 아웃도어 브랜드와 출발부터 남달랐던 브랜드로 이세이 미야케에서 일했던 케이타 이케우치와 미히코 모리가 만든 브랜드다. 대개의 아웃도어 브랜드가 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문 장비로 접근했다면, 그들은 주말에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로 접근한 부분이 달랐다. 산을 오르겠다는 의지가 아닌 산과 자연에서 노니는 아웃도어 스타일을 추구했고, 브랜드 네이밍 'wander(천천히 거닐다, 돌아다니다)'에서도 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베이스는 '소재'와 '기술'이지만 아웃도어와 일상복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를 해왔기에 현 고프코어 트렌드에서 활용될 수 있는 브랜드고, 테크 웨어와 고프코어의 중간에 위치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20] 앤드 원더(and wander)

[그림 20]은 앤드 원더(and wander)의 팬츠로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쉘 원단을 사용하였다. 이 원단은 구김이 잘 가지 않고 무게가 나가지 않고 가벼운데 데님만큼이나 튼튼해서 주로 등산이나 캠핑 등 아웃도어 룩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크하면서도 편안함을 함께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고프코어 스타일 연출에 중요 아이템이다. 또한 웨이스트라인에 밴딩이 들어가서 허리라인이 편안하며 기능성과 실용성의 감성을 더한 버클벨트는 고프코어 스타일에서 중요한 포인트 역할을 하는 액세서리 아이템 중의 하나이다.

3-2.7 다이와 피어39 (Daiwa Pier39)

다이와 피어 39(Daiwa Pier39)는 고프코어 대표 브랜드들 중에서 가장 최근에 론칭한 브랜드이다. 다이와라는 이름이 누군가에겐 낯익듯이, 다이와는 'Feel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1958년도부터 60여 년간 전개해 온 세계 최고의 낚시 브랜드다. 다이와에서 현 트렌드에 맞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출시된 게 다이와 피어 39며 그들은 '도시와 자연을 잇는 가교'를 콘셉트로 라이프스타일 웨어를 제안하고 있다. 빔즈 남성복 디렉팅을 총괄하고 있는 나카다 신스케 그리고 뽀빠이 매거진의 스타일리스트였던 아키오 하세가와가 참여했고, 아웃도어와 캐주얼의 믹스매치 브랜드로 내부디테일, 팔부분에 2개의 플리츠를 잡은 것, 수많은 포켓 등의 디테일은 아웃도어스러움을 갖고 있지만, 디자인을 보면 캐주얼 스타일을 강하게 보여주는 시티 보이 캐주얼 스타일의 고프코어 패션으로 각광 받고 있는 패션 브랜드이다. 아웃도어의 활동성을 높이는 기능성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캐주얼 스타일과 믹스하여 일상성이 강조된 고프코어의 새로운 스타일을 제시한 눈여겨 볼 만한 브랜드이기도 하다.

[그림 21] 다이와 피어39

[그림 21]은 낚시라는 브랜드 정체성이 나타나 있는 다이와 피어39의 핵심 아이템인 텐카라 자켓은 활용도 좋은 아웃포켓, 스트링, 장식배색 스트랩, 단추 같은 디테일과 밝고 경쾌한 컬러감이 주류를 이루는 고프코어 스타일과 차별화 되어 아웃도어보다 캐주얼한 스타일로 무게가 실려 보인다. 일반적인 고프코어 대표 패션 브랜드와는 색다르게 고프코어 스타일을 연출하여 기존의 고프코어 스타일이 아웃도어에 무게가 실린 스타일이라면 다이와 피어39는 아웃도어 보다는 캐주얼

한 스타일을 강조한 브랜드로 새로운 고프코어 스타일을 제시하는 브랜드로 눈여겨 볼만 하다.

3-2.8 민즈 와일 (Meanswhile)

민즈 와일(Meanswhile)은 '일상에서 착용하는 옷은 의복을 넘어선 도구'라는 슬로건으로 나오히로 후지사키(Naohiro Fujisaki)가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다. 소재는 물론 사용자를 고려한 기능적인 디자인이 특징인데, 그들에게 디자인이란 단순 장식이 아닌 기능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에 불필요한 요소들은 최대한 배제하고 옷을 선보이고 있다고 한다. 라이프스타일과 아웃도어 접점에 위치한 고프코어 대표 브랜드이다.

[그림 22] 민즈 와일

[그림 22]은 민즈 와일의 9부 기장의 가드닝 팬츠와 차분한 색감과 수납력의 기능성을 높인 멀티 포켓 셔츠는 영국산 트위드 울이 사용되었고, 트위드 소재 특유의 벌키함과 포근함은 유지하면서 현대 생활에 맞게 경량의 기능성 소재로 완성된 것이 특징이며 고프코어 스타일에 필요한 아이템이다.

앞서 언급한 고프코어 대표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편안함, 고기능성과 함께 일상성이 표현된 아웃도어 캐주얼의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며, 하이테크 소재와 의복 패턴을 통한 실착용자의 극강의 편안함과 만족감이 극대화되어 느낄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환경적 친화성(Environmentally Benign)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한다. 이상과 같이 고프코어 스타일을 추구하는 대표 해외 글로벌 패션 브랜드는 일상에서의 아웃도어 룩에 캐주얼함이 그대로 융합되어 실용적이고 편안한 스타일이고,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아웃도어의 미니멀하고 세련된 스타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착용자가 옷을 입지 않았다고 느낄 정도의 하이테크 고기능성 소재와 하이테크 기술을 접목하여 인체구조를 분석한 패턴을 통해 극강의 편안함을 느끼게 하고, 그것은 오로지 실착용자만이 느낄 수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브랜드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을 분석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브랜드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 분석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				해외 글로벌 브랜드			
▸발렌시아가 ▸지방시 ▸프라다 ▸베트멍		▸마리 카트란주 ▸구찌 ▸보테가 베네타 ▸캘빈 클라인		■아크테릭스 ■베일런스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앤드 원더 ■살로몬 ■다이와 피어 ■민즈 와일	
⬇				⬇			
실루엣	아이템	색상	소재	실루엣	아이템	색상	소재
▸Straight (H-line) ▸Bulk (Barrel/ O-line)	〈Outer〉 ▸아노락 점퍼 ▸윈드 브레이커 ▸비대칭 여밈 파카 ▸클래식 재킷 ▸오프 숄더 점퍼 ▸멀티 포켓 베스트 〈Top〉 ▸스웨트 셔츠 ▸캐주얼 셔츠 ▸드레스 셔츠 〈Dress〉 ▸나일론캐주얼드레스 ▸이브닝스타일 ▸캐주얼점퍼드레스	▸비비드 컬러 ▸어스컬러 ▸뉴트럴 컬러 ▸모노톤 컬러 ▸파스텔 컬러	▸업사이클링 소재 (폴리에스터) ▸기능성 나일론 소재 ▸재활용 플리스 소재 ▸에코 퍼 ▸에코 레더	■Straight (H-line) ■Bulk (Barrel/ O-line)	〈Outer〉 ■아노락 점퍼 ■플리스 재킷 ■퍼피 코트 ■다운 재킷 ■플리스 베스트 ■패딩 베스트 ■레인코트 〈Top〉 ■지퍼플리스 셔츠 ■고기능성 져지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체크셔츠	■어스컬러 ■모노컬러 ■차분하고 세련된 뉴트럴 컬러	■고기능성 나일론 소재 ■메쉬 소재 ■업사이클링 소재

	〈Bottom〉 ▸ 와이드 팬츠 ▸ 포멀 팬츠 ▸ 트랙 팬츠 ▸ 치노팬츠 ▸ 카고팬츠 ▸ 나일론스커트 ▸ 슬릿스커트 〈Accessory〉 ▸ 등산화형태워커 ▸ 어글리 스니커즈 ▸ 패니 백 ▸ 버킷 햇 ▸ 등산용 페이스 워머				〈Bottom〉 ■ 카고 팬츠 ■ 마운틴 쇼츠 ■ 고어텍스 팬츠 ■ 캔버스 팬츠 ■ 고기능성 치노 팬츠 〈Accessory〉 ■ 버클 벨트 ■ 하이킹 부츠 ■ 에코닐 토트백 ■ 버킷 햇 ■ 볼캡 ■ 기능성 백팩		

⬇ ⬇

고프코어 스타일 표현 특징	
▸ 미적인 요소 축소 및 실용성 추구 ▸ 패션판타지 배제 및 편안함 강조 ▸ 기존양식 탈피한 상반된 이탈적 스타일 융합 ▸ 감성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융합 연출 ▸ 새로운 유스(Youth) 감성추구 ▸ 반미학적 스타일 추구	■ 편안함, 고기능성과 함께 일상성이 표현된 아웃도어 캐주얼 실용적 가치추구 ■ 하이테크 소재와 인체구조를 분석한 고기능성 패턴을 통한 실착용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극강의 편안함과 만족감 극대화 ■ 지속가능패션추구: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환경적 친화성 (Environmentally Benign)

4.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적 특성

4-1. 다기능 융합성

고프코어 스타일에 나타난 다기능 융합성에서는 다양한 기능이 동시에 융합하여 하나의 의복에서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용도로 입을 수 있는 형태로 보이거나, 보이는 의복의 형태는 변화가 없는 듯 일반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다기능의 융합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의복에서 느낄 수 없는 착용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극강의 편안함으로 인한 육체와 정신의 안정감을 주는 감성을 담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고프코어 스타일에 나타난 다기능에는 실용성, 기능성, 지속성, 활동성, 단순성, 접근성 등이 있으며, 하나의 의복에 이러한 기능이 두 가지 이상이 융합 하여 표현되고 있다. 일반적인 다기능 복합성은 컨버전스 의미만 강하다면, 고프코어 스타일에 나타난 다기능 융합성에서는 의복디자인의 기능적 요소들의 변화를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유형의 컨버전스 형태와 더불어 착용자만이 기능적 요소들의 변화를 자기의 몸으로 극강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무형의 디자인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고프코어 스타일의 주체인 MZ세대의 자기 몸 긍정주의 (Body Positive)의 결과물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8] 자기 몸 긍정주의 (Body Positive)는 극강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트렌드와 자신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취향이 고프코어 스타일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림 23] 아크테릭스 여성용 베타 AR재킷

8) 중앙일보,[비크닉] 오버핏 패션 브랜드, 불황에도 성장한 이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0402

[그림 23]은 아크테릭스(Arc'teryx)의 고기능성 하이테크 소재의 Gore-Tex 쉘 재킷으로 입지 않은 것처럼 가볍고 편하여 일상에서 즐겨 입게 된다고 한다. Gore-Tex 소재는 완벽한 방수와 체내 땀을 배출의 기능성으로 인해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 하나의 의복을 통해 소재의 기능성과 일상에서 자주 입을 수 있는 실용성을 복합적으로 다기능 융합성을 갖추었다.

[그림 24] 베트멍 아이코닉 로고 레인코트

[그림 24] 랑방(Lavàn)은 베트멍(Vetements)의 레인코트가 기능적이며 실용적인면을 잘 융합한 고프코어를 잘 구현 것으로 소개 하였다. 내부 및 외부 포켓뿐만 아니라 매우 실용적인 드로스트링 후드와 버튼업 잠금장치가 특징이다.

[그림 25] 스노우 피크 타키비 캔버스 팬츠

[그림 25]은 스노우 피크(SNOW PEAK) 타키비(TAKIBI) 캔버스 팬츠로 캔버스소재로 제작되어 난연성 아크릴로 처리된 이 클래식 작업복 바지는 견고하고 기능적이며 매우 트렌디하다. 오버사이즈 룩과 루즈핏, 수많은 포켓은 이 바지를 편안한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에 기능적인 소재와 견고한 디테일을 강조한 고프코어의 다기능 융합성을 잘 보여주는 디자인이다.

[그림 26] H&M 2021 A/W Collection

리사이클 폴리아미드 소재의 방수 아노락 점퍼

[그림 26]에서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H&M은 아웃도어 의상과 일상복을 매치하여 잘 재단된 사토리얼 스타일이 만나 아웃도어와 기능성이 돋보이는 패션 감성이 풍부한 현대적 고프코어 패션스타일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류의 대부분은 보다 지속가능한 소재로 제작되어 긍정적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제시하였다. 에코베로 (ECOVERO™), 오가닉 패브릭, 리사이클 패브릭 등이 주요 소재로 사용되었으며 클래식한 전원의 미학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다양한 제품이 선보였다. H&M 2021 F/W 컬렉션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디자인에 실용성을 겸비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리사이클 폴리아미드 소재의 방수 아노락 점퍼는 접어서 가방처럼 휴대가 가능하며,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점프 수트나 터틀넥 집업 칼라는 어떤 의상에도 자유롭게 레이어링 할 수 있다.

[그림 27] C.P. Company 'Gore-Tex 인피늄 고글 재킷

[그림 27]는 C.P. 컴퍼니만의 빈티지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무드가 담긴 재킷이다. 이 재킷은 고성능의 고어텍스 인피늄 멤브레인 소재로 제작이 되어 외부 환경에 잘 견디면서도 편안하고 가벼운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테이프 처리가 된 심 라인으로 비바람에도 거뜬한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템의 핵심인 시그니처 고글 후드는 마치 고글을 쓴 것 같은 후드 디자인이 유니크한 포인트가 되고, 고프코프 스타일의 다기능 융합성에 컨버전스형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4-2. 이중적 지향성

고프코어 스타일에 있어서의 이중적 지향성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일상적이고 평범한 외형에 극도의 럭셔리함을 지향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믹스한 형태이다. 예를 들어 평범해 보이는 바람막이 점퍼 인 듯 보이나 력서리 고기능 하이테크 소재를 사용하여 오직 착용자만이 극강의 편안함과 럭셔리함을 느낄 수 있으며, 보는 사람들은 지극히 평범한 바람막이 점퍼로만 인식한다. 이는 평범한 외형을 기반으로 극도의 고급스러움을 지향하는 럭셔리를 드러내지 않는 이중적 지향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다기능이 융합된 외형을 바탕에 두고 패션의 디자인 감성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나눌 수 가 있다. 이는 실용성, 지속성, 기능성, 활동성, 단순성, 접근성 등 고프코어의 다기능적인 요소가 반영되었음에도 패션의 디자인 감성 측면만 부각시켜 고프코어 스타일이 아닌 트렌디한 패션스타일로 보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프코어 스타일에 있어서의 이중적 지향성의 근간은 고프코어의 다기능성 측면을 이면에 두고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림 28] 몽클레르 페니가르더 데님 다운 재킷

[그림 28]은 몽클레르(Moncler)와 제이더블유-앤더슨(JW-Anderson)의 가장 이중적 지향성의 고프코어 스타일을 표현한 콜라보레이션이다. 부드러운 데님 소재로 제작된 이 재킷은 확실히 기능성보다는 패션디자인 감성에 조금 더 치우쳐 있다. 그러나 양가죽 칼라, 스트랩 및 세련된 기능성 구조는 고프코어 트렌드에 잘 반영된 디테일이다.

[그림 29] 키코 코스타디노브 컬렉션

[그림 29] 키코 코스타디노브(Kiko Kosta- dinov)는 아웃도어 패션을 테일러링 무드로 보여주며 새로운 고프코어 스타일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그림 30] 아크테릭스 베일런스 2019 F/W

[그림 30]은 아크테릭스(arc'teryx)의 상위 버전인 아크테릭스 베일런스(Arc'teryx Veilance)이다. 이웃도어의 테크웨어 무게감을 줄이고, 절제된 고프코어의 스타일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 4.0

[그림 31]는 아웃도어와 기능성 테크웨어를 아방가르드(Avantgarde)하게 테일러링하여 풀어낸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Post Archive Faction)은 하이엔드 감성의 고프코어 스타일의 컬렉션을 제시 하고 있다.

4-3. 친환경 지속성

패스트패션 의류에 대한 환경 책임론이 부상하자 글로벌 패션 업계는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패션에 앞장서고 있으며, 프라다, 발렌시아 등 명품 브랜드들도 재생 섬유, 자연분해 소재 등 천연소재나 신소재를 활용한 상품들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다. 이렇듯 21세기는 이러한 지속가능의 개념이 환경과 문화, 디자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친환경적 디자인의 특성 중 디자인의 전 과정을 통해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일시적 사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 재료와 오래가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지속성을 나타낸다. 고프코어 스타일에 나타난 친환경 지속성은 윤리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 재활용 소재 사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2] 아크테릭스 코버트 후디

[그림 32]은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로 제작된 미드웨이트 플리스는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레이어링하기에 좋은 고프코어 아이템이다. 실용적이고 몇 년 동안 착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재판매 가치도 가지고 있다. 아크테릭스를 포함한 일부 고프코어 대표 브랜드에서는 부품을 수리, 재판매 및 업사이클링 하는데 도움이 되

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패션에 기여하고 있다.

[그림 33] 파타고니아 남성용 마이크로디니 1/2 지퍼 플리스 풀오버

[그림 33]는 하프 지퍼와 아노락 스타일 재킷은 파타고니아와 같은 지속 가능한 브랜드의 대표아이템이며,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나일론과 같은 보다 친환경적인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공정 무역 인정 봉제로 만들어 졌다.

[그림 34] 골드윈 고어텍스 인피니엄 퍼피 코트

[그림 34]은 전형적인 고프코어 브랜드 골드윈(Goldwin)의 오버사이즈 패딩은 재활용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만들어지며, 이 폐기물은 코트에 단열재로 사용된다. 이 소재는 재킷이 흠뻑 젖어도 보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림 35] 파타고니아의 베스트

[그림 35]은 지속 가능성을 회사 정신에 기반하는 파타고니아의 베스트는 100% 재활용 나일론 소재를 사용 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패션 트렌드의 신조어로 부각 되고 있는 '고프코어'를 이론적 배경을 통한 고프코어의 개념과 고프코어 스타일의 특성을 통하여 현대 패션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를 고프코어 스타일의 개념과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에 트렌드 형태로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의 개념 정의와 스타일 특성 분석을 통한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을 연구 하였다. 고프코어 스타일은 패션 트렌드의 개념으로 사회적 배경과 라이프 스타일이 반영된 스타일로 과거 형형색색의 등산복에서 벗어나 일상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착용감이 편할 뿐 아니라 기능성 소재에 세련된 디자인 접목된 스타일리시한 아웃도어 의류를 매칭해 입는 패션을 말한다.

둘째, 앞선 코프코어 스타일의 정의를 기반으로 고프코어 스타일의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프코어 스타일의 특성분석을 통해 3가지의 조형성을 도출하였다. 이런 연구 과정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의 3가지의 조형성은 다음과 같다. 다기능 융합성, 이중적 지향성과 친환경 지속성이다.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 중 '다기능 융합성'은 의복디자인의 기능적 요소들의 변화를 육안으로 확연히 들어나는 유형의 컨버전스 형태와 더불어 착용자만이 기능적 요소들의 변화를 자기의 몸으로 극강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무형의 디자인으로 보여지고 있다.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 중 '이중적 지향성'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외형에 극도의 럭셔리함을 지향하는 기능적인 요소를 믹스한 형태와 다기능이 융합된 외형을 바탕에 두고 패션의 디자인 감성을 더 강조하는 형태로 나눌 수 가 있다.

고프코어 스타일의 조형성 중 '친환경 지속성'은 윤리적 소비를 기반으로 한 재활용 소재 사용에 중점을 두어 일시적 사용에 머무르지 않고 재활용 재료와 오래가는 재료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속성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현대 패션에 나타난 고프코어 스타일의 개념 정의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고프코어 스타일을 분석하여 조형성을 연구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 고프코어 스타일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로 일시적 스타일이 아닌 오래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추구 한다는 데에서 오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스타일로서 실용적일 뿐 아니라 패션의 부정적인 요소인 한번 즐기고 버려지는 형태의 일회성면이 전환되는 스타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소비문화와 의식의 전환이 정착되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트렌드의 흐름과 소비자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더불어 고프코어 트렌드의 개념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며, 패션분야에 고프코어 트렌드를 반영함에 있어서 아이템들의 제품구성과 기획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정확한 기준 없이 사용된 고프코어의 검증되지 않는 무분별한 기사들로 인해 고프코어 스타일을 정의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고프코어와 관련된 문헌과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학문적인 세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주로 패션 컬렉션과 고프코어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고프코어 스타일을 분석하여 다루었으나 이것으로 구분하여 일반화 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고프코어 관련 브랜드를 다양하게 세분화 시켜 많은 브랜드를 선정하고, 전문가의 정성조사를 추가하고 분석하여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1.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 [밀레니얼-Z세대 트렌드], 위즈 덤 하우스, 서울, 2020.
2. 김현주, 나현신, 지속가능 패션 디자인 사례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 제15권, 3호, 2015, pp.53-68.
3. 고애란, 이정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속가능 패션 소비, 소비자학연구, 제31권, 5호, 2020.10.
4. 나현신, 후세인 샬라얀의 작품에 나타난 하이테크 패션의 미적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 2008,9.
5. 변은성, 김미현, 사물인터넷 환경에 대비한 어반 테크웨어 프로토 타입 연구, 한국복식학회, Vol 69, No.4. 2019. 6.
6. 배정훈, '기후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아웃도어 웨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7. 양미경, 2015 패션 트렌드에 나타난 Normcore 개념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8. 이민선, 패션에 표현된 일상성: 놈코어, 고프코어, 미노코어를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Vol.61, P19-30, 2018. 11.
9. 이상권, MZ세대의 인식과 태도의 차이가 사회적 기업의 패션상품에 대한 태도와 프리미엄 가격 지불의도에 미치는 영향, 금오공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10. 이주영, 조경숙, MZ세대 특성이 나타난 패션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사례 연구, 한국복식학회, 2021,12, Vol.71. No. 6.

11. 이호재, 고은주,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지속가능 매크로 트렌드 분석, 패션비지니스, 제26권, 1호, 2022. 2.

12. 김경선, 2023 아웃도어 패션 트렌드: 고프코어룩 등장, 월간아웃도어, Vol.213, (주)아웃도어글로벌, 2023, 2.

13.https://www.ziksir.com/news/articleView.html?idxno=32096

14.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8050

15.https://www.oncuration.com/MZ세대들의-라이프스타일-고프코어

16.https://www.seventeen.com/fashion/trends/a42229618/what-is-gorpcore/

17.https://edition.cnn.com/cnn-underscored/fashion/gorpcore-style

18.https://www.mobiinside.co.kr/2021/06/14/2030-trend/

19.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211150088

19.http://www.b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10468

20,https://www.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seq=8070

21.http://www.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71701

22..https://www.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3_view.asp?seq=8070